전남 농가인구 절반은 여성…농협 조합원 전국 최다

여성 농가인구 15만명 전체 51.9%…전년보다 4.6% 증가
10년 새 4만8246명 24.2% 감소…전체 농가인구도 23.5%↓
농협 지역본부·지역농협들, 포럼·여성대학 등 지위 향상 힘써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앞줄 오른쪽 2번째)는 최근 고향주부모임 전남·경남도지회 임원 40여 명과 순천농협에서 '제15회 영·호남 여성 지도자 남도문화포럼'을 열고 농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농협 제공〉

4년 연속 감소하던 전남 여성 농가인구가 지난해 반등하며 15만명대를 회복했다.

여성 경영주와 여성 농협 조합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여성 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여성 농가인구는 15만875명으로, 전년(14만4280명)보다 4.6%(6595명) 증가했다.

전남 전체 농가인구도 28만60명에서 29만551명으로, 3.7%(1만491명) 늘었다.

전체 농가인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51.5%에서 이듬해 51.9%로 소폭 증가했다.

전남 여성 농가인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 평균 여성 농가인구 비율은 50.3%였다.

전남 여성 농가인구는 지난 2016년 16만9740명 이후 2017년 16만6257명, 2018년 16만1609명, 2019년 15만7444명, 2020년 14만4280명 등으로 감소해왔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전남 여성 농가인구는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5만명 가까이 줄었다.

2011년 전남 여성 농가인구는 19만9121명으로, 10년 새 4만8246명(-2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 전체 농가인구는 37만9767명에서 29만551명으로, 8만9216명(-23.5%) 줄었다.

여성 농업인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농협 조합원 비율은 전남이 전국 9개 도(道)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2020년 10월 기준 전남지역 여성 농협 조합원은 10만5830명으로, 전체 조합원 29만741명의 36.4%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 여성 조합원 비율은 전국 평균 33.0%(211만5286명 중 69만7466명)를 웃돌았다.

전남 여성 비율은 전국 9개 도(세종은 충남에 포함) 가운데 가장 높았고, 조합원 수는 16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광주 비율(37.0%·2만1187명 중 7844명)은 16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 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임소영 외)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여성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경영주로 등록한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등 지표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농촌 지역에서 여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충분히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 비중은 33.3%에 달하지만, 임원 비율은 9.0%에 불과한 것이 하나의 예다.

보고서는 여성 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경영주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2020년 기준 전국 공동경영주 4만7000명 가운데 여성은 87.6%에 해당하는 4만1000명으로 양적 성장은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여성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남편의 동의 없이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되면서 여성의 공동경영주 등록이 더욱 활발해졌다.

하지만 등록 대상인 여성 농업인 수에 비해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또 농협에서 여성 임원의 실질적인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조합원 구성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에서만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탓에 여성 조합원 구성 기준을 지금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들은 광주·전남 17만명에 달하는 여성 농가인구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사단법인 고향주부모임 전남·경남도지회 임원 40여 명을 순천에 초청해 '제15회 영·호남 여성 지도자 남도문화포럼'을 열었다.

여성 농업인 소비자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지난 2006년부터 영·호남 여성지도자들이 서로 지역을 오가며 지역사회 봉사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등 농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북광주농협은 지난 13일 광주시 북구 본촌동 본점에서 '5기 여성대학' 개강식을 열고 수강생 90명과 역량 강화를 다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탄소중립 벼 재배 확대

모판관주처리·직파재배 등
벼 생력재배 연시회 개최

모내기 철을 앞두고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벼 재배 확대에 나섰다.

농협 전남본부와 전남도는 지난 13일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들녘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벼 생력재배 연시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선보인 탄소중립 농업기술은 모판관주처리, 자율주행 이앙, 드문 모심기, 직파재배, 자율주행 드론방제 등이 있었다.

모판관주처리는 벼 못자리나 모판에 약제를 한 번 뿌려주는 농법이다. 논의 벼 병해충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큰 것이 특징이다.

전남농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흥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국내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데 그치지만, 배출량 가운데 메탄과 아산화질소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정부 시책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멸위기의 농업·농촌을 살리는 변화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해 전남 배 생산량 6만8762t…5년 만에 최고

전년보다 2.5배↑

지난해 전남 배 생산량이 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면서 2016년 이래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다.

15일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에 따르면 전남 배 생산량은 지난해 6만8762t으로, 전년보다 147.5%(4만974t) 증가했다.

전남은 배 생산량이 전국(21만293t)의 32.7%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전남 배 재배면적은 지난해 2440ha로, 전년보다 19.1%(391ha) 증가했다. 10a(1a=100㎡)당 생산량은 2818kg으로, 전년보다 107.8%(1462kg)나 뛰었다.

전남 배 생산량은 지난 2014년(9만4913t) 이후 6년 연속 감소하다가 최악의 집중호우를 기록한 2020년 2만7788t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2016년(6만9119t) 이후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저탄소 식생활 주제 어린이 글짓기 대회

19일까지 응모작 접수
공공급식 요리 경연대회도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학교급식을통한 저탄소 식생활을 주제로 한 '2022 우리 농수산식품 어린이 글짓기 대회' 응모작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공사는 어린이들이 저탄소 친환경 급식을 통해 어려서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및 확산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 이번 대회는 공사가 주최하는 '2022 공공급식 요리 경연대회'와 함께 진행된다.

글짓기 주제는 ▲지구를 지키는 우리학교 급식 ▲로컬푸드·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우리학교 급식 ▲자랑하고 싶은 우리학교 급식 등이다.

수기·수필 등 생활문 형식으로 2000자 이내(200자 원고지 10매)로 작성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유치부(5~7세)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6학년) 등 3개 부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hat.gongmoje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배 농수산식품거래소 본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세대들에게 건강한 우리 농수산식품의 우수성과 올바른 식생활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탄소 친환경 급식을 통해 미래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지속 가능한 급식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흥 햇마늘 본격 출하…전년비 경매가 28%↑

2022년산 고흥 햇마늘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달 초부터 수확한 고흥 햇마늘을 롯데슈퍼와 공동 구매해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준비된 물량은 50입(반접) 약 7만개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마늘 생산량은 30만9000t으로 평년 대비 약 2만4000t(-7.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정 당국은 파종기 고온, 겨울가뭄 등으로 마늘 생육 상태도 다소 부진한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작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고흥 녹동농협에서 지난 11일 처음 경매된 주대 마늘(4kg)은 전년(1만6000원)보다 28.1% 오른 2만500원에 팔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는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해 6477t(가격안정 6153t·출하안정 324t) 물량을 계약재배한다. 38억7700만원 상당 수급안정사업비도 조성했다. /백희준 기자 bhj@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무지구(상가매매)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